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Class of 2020

COMMENCEMENT

World Missio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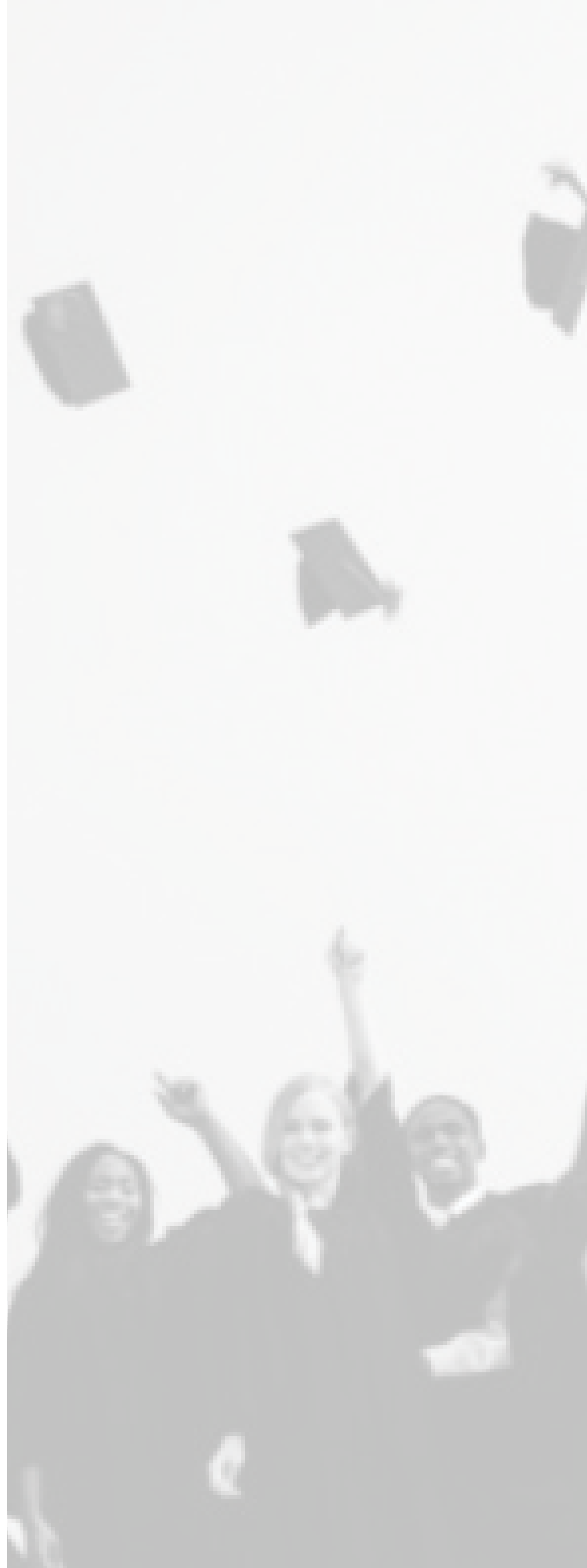
Saturday, June 6, 2020 | at 1:00 pm | World Mission University

29th Annual Class of 2020

COMMENCEMENT

World Mission University

발행인 임성진
편집인 김 영 · 최 은
발행일 2020년 6월 6일
발행처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1. 213. 388. 1000 www.wmu.edu wmuinfo@wmu.edu



CONTENTS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밝은 빛을"

임성진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오늘 우리는 제 29회 학위수여식을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101명의 졸업생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축하합니다. 라틴 형제 자매들과 중국사역자와 선교사님들이 함께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와 온라인으로 학업을 잘 마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자로 우뚝 서 있는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졸업생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신실한 사역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일도 어렵지만 끝까지 그 경주를 마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졸업생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일원이 학업을 마치기까지 가족 구성원은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가장이 공부하는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됩니다. 이사님들과 후원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선교적 열정을 가진 후원자가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과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세계 복음화의 열정을 가진 동역자가 아니라면 인격적 감화와 지적인 영향력을 학생들에게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인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팽배하여 각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자신과 과학을 우상화하고 있으나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자신들이 추구하던 세속적인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감으로 서로를 의심하며 분노와 혐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평화롭고 소망이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이런 시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신학과, 음악학과, 상담학과, 간호학과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사역자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가을학기부터는 사회복지학과, 글로벌리더십학과, 그리고 예배학과를 증설하여 세상을 섬기는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같이 졸업생을 위시하여 모든 월드미션공동체가 우리 이웃의 발을 씻기는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므로 만방에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월드미션대학교 공동체는 어지러운 세상에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 13:34-35)



" 축하합니다 "

총 101명

대학 (38명)

AABS (18명)	Esau Canales, Guadalupe Canales, Carlos Lozano, Sosia Lozano, Elvia Rivas, Erika Zapata R, Estela Lee, Irma Viera, Jose Larin, Santos Montufar, Ana Rosales, Giovani Cortes, Vasni Monjaraz Vargas, Ronnal R Bojorquez, Maria Santos Bojorquez , 원제철, 최성호, 최혜숙
AACC (1명)	송영애
BACC (8명)	김광민, 김영, 손현숙, 안성자, 원미란, 이영선, 조해자, 황복랑
BAM (1명)	박용빈
BABS (10명)	권순희, 노훈, 맹재관, 박은미, 박철룡, 박희백, 안동진, 최은혜, 최재우, 패터슨은선금자

대학원 (63명)

MACP (21명)	강미라, 권현정, 김동환, 김미숙, 김성윤, 김영실, 김옥순, 김윤정, 김진이, 라성애, 류지혜, 유형식, 이설희, 이양한, 이옥희, 이욱, 이윤정, 임명규, 임형근, 정은신, 최영자
MAM (2명)	서빛나, 손종수
MAT (15명)	김주현, 유혜영, 이영란, 최규상, 홍진우 Quing Chai, Wenjing Niu, Meiqing Shi, Shurong Wu, Chenfeng Yang, Jiazhong Zhang, Ping Zhao, Yan Qiao, Honquin Fan, Yiping Ouyang
M.Div (19명)	강유미, 곽동훈, 김영빈, 김정석, 문성진, 박원석, 박종명, 박주은, 윤석언, 이수재, 이원철, 이화연, 임은정, 임종혁, 전은상, 정앤드류, 지미리, 현혜경, 홍철화
DCM (2명)	장상근, 조지현
D. Min (4명)	김대성, 정현, Yufeng Huan, ShanHua Jin



2020년도 학위수여식
29 th Annual Commencement

2020년 6월 6일 (토), 오후 1시

인도(Presider): 신선묵 부총장

입장	(Opening Procession)	........순서담당자, 교수단, 졸업예정자
개회선언	(Opening Announcement)	.... 인도자
학사보고	(Academic Report)	.... 인도자
학위수여	(Conferring of Degrees)	.... 총장, 부총장, 이사장
	[Degrees Granted: AABS, AACC, BACC, BAM, BABS, MACP, MAM, MAT, M.Div, DCM, D.Min.]	
축가	(Congratulatory Song)	허지애 학우
총장메시지	(President's Address)	.... 임성진 총장
졸업생답사	(Graduate's Response)	.... 홍철화 학우
졸업생간증	(Litany of Dedication)	.... 윤석언 학우
헌신의기도	(Litany of Dedication)	.... 다같이

이제 학위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소서.

진정 우리들이 교회와 세상을 위해 말씀 중심과 선교 중심의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편협한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온 세상이 치유함을 받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졸업생들이 이제 사역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저들의 생을 축복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아버지의 충성스런 종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저들에게 용기와 지혜, 믿음과 겸손, 온유와 따뜻한 마음을 풍성히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졸업생과 또 졸업생을 보내는 재학생과 교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29회 졸업식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평화의 도구로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교가제창	(School Anthem)	.... 다같이
축도	(Benediction)	.... 송운철 교수
퇴장	(Recessional)	.... 다같이

학위수여 대상자 명단

AABS: Esau Canales, Guadalupe Canales, Carlos Lozano, Sosia Lozano, Elvia Rivas, Erika Zapata R, Estela Lee, Irma Viera, Jose Larin, Santos Montufar, Ana Rosales, Giovani Cortes, Vasni Monjaraz Vargas, Ronnal R Bojorquez, Maria Santos Bojorquez ,원제철, 최성호, 최혜숙 (18명)

AACC: 송영애 (1명)

BACC: 김광민, 김영, 손현숙, 안성자, 원미란, 이영선, 조해자, 황복량 (8명)

BAM: 박용빈 (1명

BABS: 권순희, 노훈, 맹재관, 박은미, 박철룡, 박희백, 안동진, 최은혜, 최재우, 패터슨은선금자 (10명) 대학 38 명

MACP: 강미라, 권현정, 김동환, 김미숙, 김성윤, 김영실, 김옥순, 김윤정, 김진이, 라성애, 류지혜, 유형식, 이설희, 이양한, 이옥희, 이욱, 이윤정, 임명규, 임형근, 정은신, 최영자 (21명)

MAM: 서빛나, 손종수 (2명)

MAT: 김주현, 유혜영, 이영란, 최규상, 홍진우
Quing Chai, Wenjing Niu, Meiqing Shi, Shurong Wu, Chenfeng Yang, Jiazhong Zhang, Ping Zhao, Yan Qiao, Honquin Fan, Yiping Ouyang (15명)

M.Div: 강유미, 곽동훈, 김영빈, 김정석, 문성진, 박원석, 박종명, 박주은, 윤석언, 이수재, 이원철, 이화연, 임은정, 임종혁, 전은상, 정앤드류, 지미리, 현혜경, 홍철화 (19명)

DCM: 장상근, 조지현 (2명)

D. Min: 김대성, 정현, Yufeng Huan, ShanHua Jin (4명) 대학원 63 명

총 101 명

수상자 명단

총 장 상: 홍철화, 이설희, 박은미
총장특별상: 윤석언
부총장상: 이원철, 권순희
이사장상: 김성윤, 이에스텔라
총회장상: 박종명, 김영, Jose Larin
ABHE상: 박용빈
동문회장상: 김영
교 수 상: 홍진우, 이양한, 손종수

졸업생 현황

과정	AACC	AABS	BACC	BAM	BABS	MACP	MAM	MAT	M.Div	DCM	D.Nin	Total
2020	18	1	8	1	10	21	2	15	19	2	4	101
총계	25	8	75	30	347	85	74	80	364	3	15	1,106

광고

1. 2020년 제 29회 학위수여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2.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과 그 가족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3. 본교의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동양선교교회, 후원자, 이사진, 동문회, 그리고 모든 교직원과 재학생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

홍철화 M.Div.
졸업생 대표

전례 없는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초 발원지인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을 거쳐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더 이상의 전파를 막고자 도시를 봉쇄하였고, 그마저도 전파를 늦추지 못하니 이제는 전 국가를 봉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녹록치 않아 이미 백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7만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 Stay at Home 명령을 통해서 학교는 물론이고, 식당, 쇼핑 센터 등 삶에 필수적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집에 머물기를 독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월드미션 대학교도 온 캠퍼스 수업은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었고, 급기야 2020년도 학위 수여식마저 취소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졸업생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가정으로, 사역지로, 교회로, 지역 사회로 졸업생들을 보내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 산에 떨기나무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라" 그러나40년의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80세의 모세는 이제는 더 이상 지난날의 패기 넘치던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늙고 초라한 목자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연약함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의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 보라 하셨습니다. 그가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의지했던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셔서 모세가 잡으니, 그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되었지만 그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돌려받은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지팡이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던져라" 하시는데 그것이 마치 내게서 사라지는 것 같아 "하나님, 던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던지지 않고 당신을 얻게 하소서"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어느 누구도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져야 하고, 그 버려짐으로 인해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얻게 된 학문적 지식과 경험, 성경과 목회와 관련된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과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사랑과 회복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할 때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의지 하던 지팡이를 던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은 내는 기적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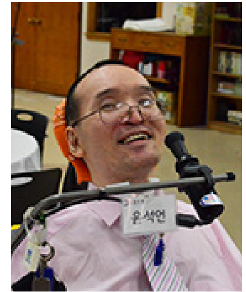
인간은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마저 속절 없이 부서지고 생명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이룩한 문명, 과학과 의학 기술도 한낱 바이러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이웃의 고통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전염병에 걸려 아파하는 이웃들, 경제적 불황으로 고통받는 이웃들, 방역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사, 간호사들,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이웃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학위 수여식이 온라인으로 열리지만, 2020년에 졸업하는 모든 학우들 축하 드립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며, 여러분의 오랜 학문적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졸업생들에게 복음에 바탕을 둔 신학과 학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 주시고 훈련해 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교를 운영하고 온라인 강의를 비롯한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신 교직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졸업생들과 재학생들 모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각자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주께 던져 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

.

“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



윤석언 M.Div.
졸업생

1991년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기 전엔 보통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여행 하는것과 맛있는거 먹는걸 좋아하고 돈 많이 벌기를 원했습니다. 암벽 등반, 스키, 테니스, 그리고 수영 등은 어디라도 가서 즐길 수 있는 튼튼한 청년이었습니다. 20대가 되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살기 원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처럼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면 좋은데 실력은 안되고 일단 X-ray 기사 자격을 따 보라는 아버지의 권유로 관련된 과목을 등록했습니다. 저의 미래는 제가 계획을 세우면 다 되는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허락(?)이나 성령님의 도우심(?) 등은 생각치도 않고 젊음을 입고 있던 저에게 그런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길고 단단하고 영원할 것 같은 저의 젊음은 브레이크 굉음 짧은 ‘쾅’ 소리와 함께 날아갔습니다.

40여일의 혼수상태에서 깨어 눈을 떠 보니 침대였습니다. 몇 주, 아니 길게 잡아도 한달이면 회복 되는 것이 육체인 줄 알았는데 글을 쓸 수도 없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면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려야 하는데 성대마저 마비되어 소리도 안나왔습니다. 미래가 깜깜했습니다. 파리가 보이면 얼굴에 날아와 붙을까봐 신경이 쓰였습니다. 머리가 가려워도 참아야만 했습니다. 사고이후 정신적, 영적, 육체적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하루라도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기만을 원했습니다. 저의 필요를 다 채워 주시는 어머니를 하루종일 기다렸습니다. 무료한 시간에는 저를 낫게 해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이때 쓴 시들은 손을 쓸 수 없기에 다음날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외우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셔도 말을 할 수 없어서 글자판을 봐가면 원하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눈을 깜박거리며 한글자씩 만들어 가며 중환자실의 짧은 면회 시간을 다 썼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하나 둘 붙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격려해주는 신실한 친구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비된 육신을 보살펴 줄 하늘의 부름을 받은 개인 간호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2~3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의사들의 말을 뒤로하고, 저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을 가는 횟수가 줄어 들면서 저는 특수장치가 있는 컴퓨터를 통해 세상의 이런저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지인을 통해 경희 사이버대학을 소개 받았습니다.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의심반 기대반으로 오랜시간 접어두었던 학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문서사역 쪽에 관심이 있어서 문창과에 지원했습니다. 학업을 시작하면서 느린 속도지만 성경을 한자 한자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몸의 컨디션으로 힘든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제때에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학공부를 마치니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믿음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2015년 7월부터 월드미션신학대학원 목회학 과정을 시작하여 서툴고 느렸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년간의 과정을 통해 저에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깊이와 맛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사역자의 마음과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받을 만한 은사님들의 열정과 따스한 목자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천국을 동행 할 친구들과 동료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따스한 친절로 격려해 주시는 교직원분들의 응원과 도움으로 힘들어도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 가득한 학창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번 팬데믹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배웠습니다. 주님의 형상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피조물인 우리가 할 일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이라는 높은 산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 두려움을 찬양으로 극복합시다 "

윤임상 교수
Director of MAM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식별하지도 못하는 작은 미세먼지만도 못한 그 물체가 온 지구 전체를 마비시켜놓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일상의 삶도 정말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변화가운데, 특히 우리를 슬프게 하는 현상은 우리의 모습 속에 웃음이 점점 사라지고, 서로를 경계하며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서로를 잘 신뢰치 못하는 현상입니다.

비록 이렇게 세상은 변해가고 있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주제 삼아 만든 찬송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찬송가운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God will take care of you" 라는 곡은 1904년에 침례교 목사님 부부 (Civilla Durfee Martin 작사Walter Stillman Martin 작곡)에 의해 만들어진 곡 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월터 스틸만 마틴 목사님이 1904 년 어느 주일 오후, 주위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 아침 일찍 부터 아내 되는 시빌라 둘페 마틴이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어 아내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마틴 목사님은 초청 받은 교회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참여치 못할 것을 고려하여 아내와 대화를 하던 중, 그 소리를 들은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Father, don't you think that if God wants you to preach today, He will take care of Mother while you are away? 아빠,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엄마를 돌보실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아들의 말을 들은 아내 시빌라는 영감을 얻어 그날 오후 "God will take care of you"라는 제목으로 이 찬송가를 썼고, 남편 목사님이 저녁 설교를 마치고 돌아온 늦은 저녁, 이 시를 남편 목사님에게 건네 주었다 합니다. 즉시 마틴 목사님은 이 시에 곡을 붙이게 되었고 그날 밤 이 찬양이 완성되어 온 가족이 함께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 찬양이 주제가 되는 말씀을 찾아 본다면 시편 91:4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입니다. 이 시편 91 편의 주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난처를 간구하는 사람들을 모든 위험과 환란으로 부터 보호해 주시며 위로 하시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때 우리의 내면에 깊이 새겨야 할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찬양하며 그 안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않으시겠습니까?

"God will take care of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

" 위기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



김현경 교수
Director of BA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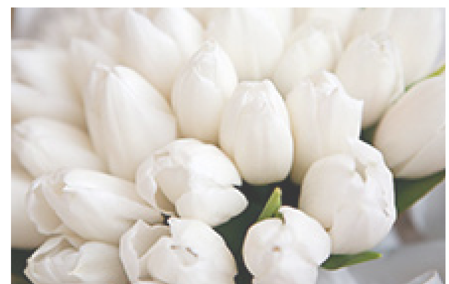
Scott Peck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인생은 문제와 고통에 직면하는 것"으로 삶이란 결국 문제의 연속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녕과 안정감을 위협하는 사건과 상황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 여정에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Covi-19 사태의 파장이 너무도 커서 분명 우리 모두의 삶은 Covi -19 사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Safer-at-home과 사회적 거리 두기 Social Distance와 같은 처방들이 어느 정도 새로운 삶의 방식 New Life Norm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Covi-19 사태 역시 인류의 생존을 위협했던 첫 번째 사태도 아니고 또한 마지막 사태도 분명 아닐 것이며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의학 연구도, 최첨단의 의료기구와 기술도,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고 보존해줄 수 있는 온전한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Covi-19 사태를 통해 앞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또 다른 위험과 고난,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분,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시 18:2)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의 안식과 평안 가운데 온전히 다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Covi-19 사태가 WMU 학우 여러분께 2020년을 잊지 못하게 하는 위기의 순간으로만 마무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시각, 나아가서는 인생 목표와 세계관을 재평가하고 확인하는 성장의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는 한문의 글자대로 위기이자 또한 기회가 됩니다. '연약하나 더 강해지는 Vulnerable yet Stronger' 기회입니다. 위기를 통과하면서 자신 안에 있으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용기와 힘, 그리고 내적 자원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학우님들가운데서 Covi-19 사태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 관계적, 육체적 위기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학업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쉽지 않은 결단과 헌신으로 시작하신 WMU의 학위 과정임을 잘 알고 있기에 이 시기의 위기로 인해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한 학위 과정이기 이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겨진 삶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전공한 통로를 통해 훈련받기 원했던 마음을 다시 강하게 붙들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현재 서 있는 인생의 여정을 함께 가시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는 과정에는 수많은 방해와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지만, 결국 그 길을 마무리했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WMU의 학과 과정이 학우님들께 학위를 취득함은 물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영적 체험과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어려움은 지나갈 것입니다 ”

송운철 교수
Director of MAT

코로나19사태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교 학생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당하는 불편 이상의 경제적 어려움이 생활을 위협합니다. 정부의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학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맹자는 하늘이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고되게 하고 행하는 일에 어려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힘을 얻어 뜻을 세우고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아 후일 혼란의 시기에 길이 되어준 위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어둠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는 고난극복의 커다란 자원을 가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어려움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간을 이겨낸 자들의 영적 근육은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도전 앞에서도 피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로 설 것입니다. 오래 전에 읽었던 김성우 작가의 수필집, “돌아가는 배”의 글귀 하나가 생각납니다. “파도는 잔잔해지기 위해 일렁인다.” 기도와 믿음으로, 서로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뻗으므로 이 시기를 무사히 통과하길 빕니다.

말씀사역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집니다. 미래사회는 다원적 가치관의 혼재와 충돌로 서구사회의 기독교적 기초가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영향을 미쳐 성경의 가르침을 의심하고 회의와 무관심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이때 필요한 것은 효과적인 말씀사역자입니다. 혼돈의 시대에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선명하고 감동적으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기우려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담긴 가르침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이라는 빽빽한 열대우림을 헤메다 주저앉기도 하고, ‘현장에서 통하는 것이면 된다’는 실용주의와 야합할 수 있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대신 다수와 대세에 편승해 쉽게 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세우고 스승을 모시고 차근 차근 준비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능숙하게 가닿는 연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은 나타난다고 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진지한 고민과 결단의 순간이 있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둘째는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야 합니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과거 저는 수 차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 사역자는 자신의 미래 청중의 욕망과 두려움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생애발달단계마다 인간이 맞이하는 보편적 고민과 필요는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재하면 효과적 말씀사역자가 되지 못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뜻을 정하고 정직한 노력을 기울이는 신학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미래 사역지는 효과적 말씀사역자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최비키
학생회 회장 (2019 - 2020)

'29회 월드미션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

COVID 19 으로 인해 함께 모여서 졸업식을
거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이지만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에서 진리를 탐구하며 '말씀으로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 시키자' 라는 학교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시련과 희망이 교차하는 큰 전환기 속에서 지성과 영성이 겸비된
리더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배움을 통하여 많은 깨달음을 얻은대로 지난날을 성찰하고 확실한
목표를 갖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사역자로서 봉사와 사랑을 나누는
참된 크리스찬 리더가 되기를 소망 합니다. 학교 울타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목표와 사명을 위해 정직과 신실함으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신의 성품을 덧입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어 가는 곳마다
말씀의 검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 나가는 선한 청지기 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이현아 교수
Director of BASW

“사회복지학과 신설”

interview

사회복지학과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는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의 질(행복)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복지가 필요한 대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문은 이러한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차원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방법을 연구, 실천하는 학문입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복지가 필요한 다양한 대상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연구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어떤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과정인가요?

사회복지학과는 인권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사역을 위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이들을 찾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적인 복지서비스를 계획, 개발, 제공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학문을 배움으로써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뿐만 아니라 빈곤, 고령화, 저출산, 자살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사회, 국제사회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사회복지학과 학위를 필요로 하는지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국제구호개발 NGO, 기업의 사회공헌팀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기독교사회복지재단, 기독교사회복지기관이나 교회 부설 복지기관에서 기독교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상위 학위로의 진학을 위해서 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학위(MSW, Master of Social Work)를 취득할 수 있으며,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학위과정을 마치면 어떤 자격증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학과와 협약을 맺은 학회와 연구소를 통해서 기독교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기독교인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10:27)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복지를 통해 나와 내 주변의 이웃들, 더 나아가 지역사회, 국제사회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소명을 다하고 실천하는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 사회복지학과가 월드미션대학교에 신설되어야 하나요?

월드미션대학교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본교의 신학과 선교학 과정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지식, 임상능력을 갖춘 사회복지학과를 신설함으로써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데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의 기독교 정체성을 겸비한 기독교사회복지사는 교회와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에서 실제적인 복지선교를 실천하는 귀중한 인재로서 큰 역할을 해내리라 자부합니다.



2019 후원의 밤

간호학과 신설기금 마련을 위한 2019 후원의 밤이 11월 2일(토) 오후 6시, Oxford Palace Hotel에서 개최되었다. 200여명의 본교 후원자가 참석한 올해 후원의 밤에는 임성진 총장의 환영 인사에 이어 본교 음악학과 교수인 Jeff Colella의 Classic Jazz Trio가 특별 무대를 선보였으며, 간호학과 소개 영상과 오정기 교수의 '21세기 간호 교육에 있어서의 도전과 혁신' 기조 연설, 그리고 본교 대외협력처장 이금희 교수의 1110 기부릴레이 안내가 진행되었다. 이 날 장한 동문상에 김학송 동문이 수상했으며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M.Div 재학중인 최은 학우가 '임동선 설립자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윤성환 이사장의 축도로 모든 후원의 밤 행사를 마쳤다.

월드미션대학교 30주년 기념음악회

지난해 개교 30주년을 맞아 월트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월드미션대학교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클래식과 정통 재즈음악으로 수준 높은 음악적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월드미션대학교 재학생들이 뛰어난 기량으로 채영석 작곡가의 창작 칸타타 '요셉'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를 리드하는 월드미션 대학교"를 주제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낸 학교의 밝은 미래를 제시했다.













학교, 기관과 MOU

월드미션대학교는 2019년 한해 동안 서울장신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백석대학교와 MOU를 맺었으며, 커뮤니티 내 Together Mental Health Clinic과 3C Medical Clinic과도 MOU를 맺어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WMU 세미나

김경준교수 학술 세미나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 송경화 교수 OC상담대학원 [치료 워크샵 EMDR], [내면가족치료ISF] , 예배찬양세미나, 2002년봄학기학술세미나(취소) 등 다양한 세미나가 진행 되었다.

GLOBAL WORSHIP CONFERENCE 2019 in LA
글로벌 예배컨퍼런스 2019 in LA

세계적인 예배와 찬양 강사
탐 크라우터(Tom Kraeuter) 초청

예배 찬양 특별 세미나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

10월 26일 (토)
9am–4pm
베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949-854-4010

주최 글로벌워십미니스트리 (Global Worship Ministry)
주관 베델교회
후원 월드미션대학교
대상 목회자, 교회 리더, 예배인도자, 찬양인도자, 보컬, 악기 연주자, 예배자

등록 선착순 150명
등록비 $ 80 (강의안, 식사제공)
문의 714)337-4532
wlm@hanmail.net
facebook.com/laglobalworship

GlobalWorship 글로벌워십미니스트리
WORLD MISSION UNIVERSITY

2020
학 술 세 미 나

누가-행전에 나타나는
새출애굽과 이스라엘의 회복

- 일시 : 2020.3.24 (화) 7:00 PM
- 장소 : 본교 채플실
- 강사 : 신용길 박사 (Fuller Seminary 신약학 교수)

WORLD MISSIO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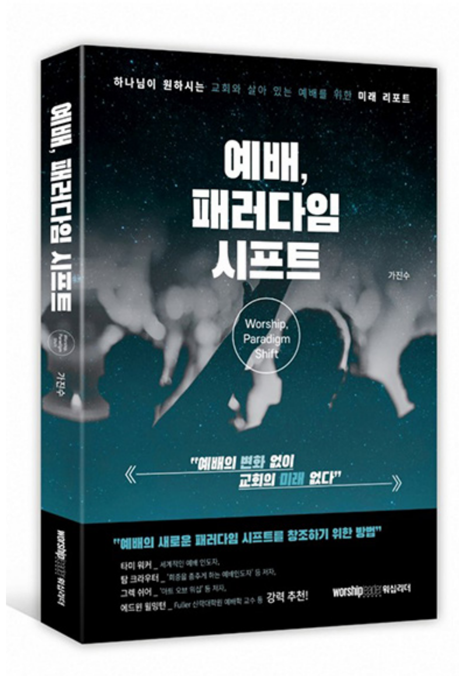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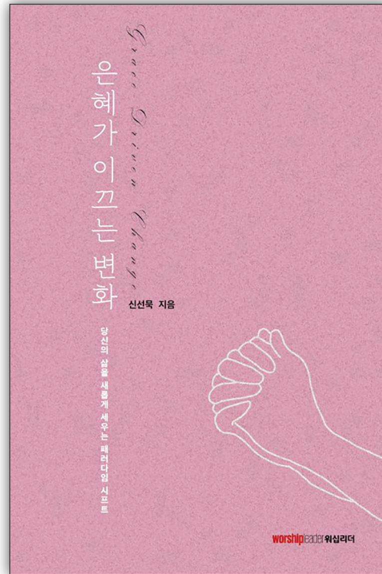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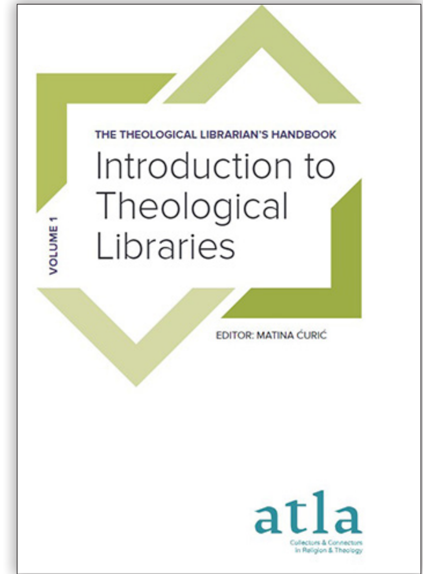
본교 설립자 고 임동선 목사 추모 3주기를 맞아 "임동선 목사의 선교신학"이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자 임동선 연구" (임윤택 교수)를 비롯해, 신학자와 목회자 등 25명이 '임동선 목사의 선교신학', '동양선교교회 나무들과 아름다운 열매들', '그리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주제로 고인의 선교 열정과 신학을 정리해 엮었다. 이 책에는 임동선 설립자의 투철한 선교 정신과 목회자로서 귀감이 되는 목회 철학이 오롯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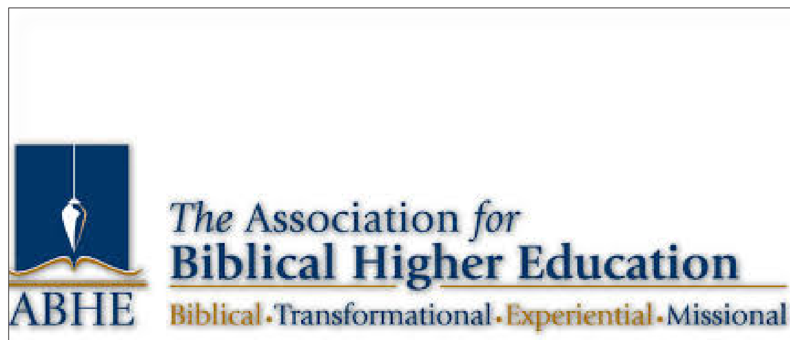
본교 예배학 석사과정 디렉터,
예배학 전문가 가진수 교수
“예배, 패러다임 시프트”
(부제: 예배의 변화없이 교회의 미래없다)



본교 선교학 교수,
리더십 전문가 신선묵 부총장
“은혜가 이끄는 변화”
(부제: 당신의 삶을 세우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



본교 김서영 사서가 공저로 참여
“The Theological Librarian's Handbook“
ATLA OPEN PRESS에서 출판



2020년 4월 13일(월) 에서 부터 16일(목)까지 ABHE (기독교대학협의회)의 Team Visit 이 있었다. 본교는 ABHE 정회원 학교로 10년마다 있는 Accreditation Renewal을 위해 이 기간에 Team Visit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Virtual Interview로 전격 대체되어 나흘간의 Online Team Visit이 이루어졌다.

Spring










세상으로
월드미션의 밤
WMU
화이팅



www.wmu.edu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1. 213. 388. 1000 | admissions@wmu.edu